

# 코넥스기업도 펀딩 가능... 발행한도·1인 투자액 2배 확대

(30억)

(2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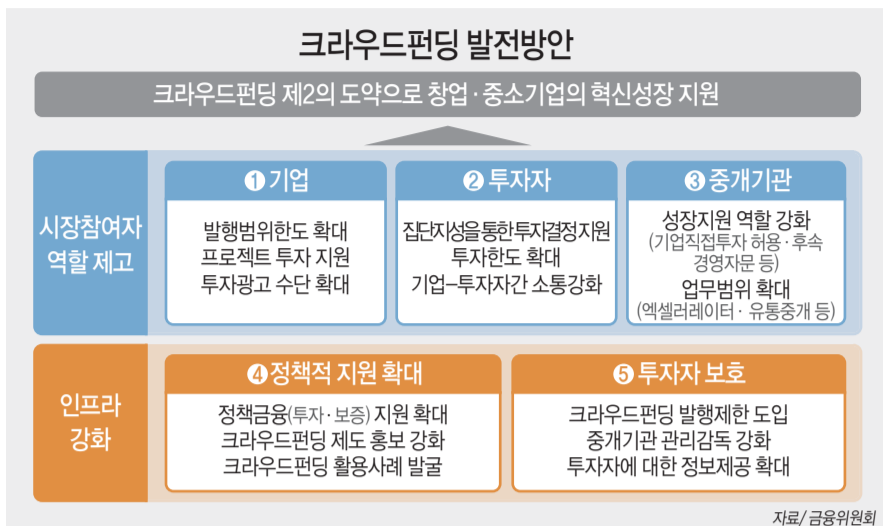
금융위, 클라우드 펀딩 개선안  
기존 광고수단 제한 폐지  
'투자방향 점검제도' 도입

앞으로 클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발행기업 범위가 비상장 창업·벤처 기업에서 코넥스 상장 이후 3년 이내인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모험자본을 늘려 창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클라우드 펀딩 제도의 지속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클라우드펀딩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클라우드 펀딩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자금 조달 가능



을 확대한다.

클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와 발행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발행기업을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코넥스 상장 이후 3년 이내인 기업으로,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클라우드펀딩 진행 사실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광고수단 제한을 폐지한다. 단, 단순광고는 중개플랫폼 안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중개기관은 단순광고여부를 사전검토한 뒤 협회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투자자가 온라인플랫폼에 게재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하기 때

문에 펀딩 중개 과정 시 수요예측·반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펀딩 진행 전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방향 점검제도'를 도입한다. 중개기관은 점검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실제 펀딩진행시 목표 금액 설정에만 활용한다. 또 오프라인으로 투자설명회(IR) 개최를 허용한다. 단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정된공간, 참관인 배석등의 전제조건이 부과된다.

투자한도도 확대한다. 연간총 투자한도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적격투자자의 경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클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중개기관이 투자자로 발행기업을 후속관리할 수 있도록 중개 기관의 자기중개 증권 취득을 허용한다. 단 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펀딩성공기업으로 목표금액과 모집금액의 차액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예컨대 목표금액이 10억원이고 8억원 모집에 성공한 경우 최대 2억원 내에서 투자 가능하다.

또한 중개기관이 클라우드 펀딩 이후 발행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한다. 단 투자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직접 투자, 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펀딩중개를 금지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K-클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클라우드펀딩 발행은 금지하고,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등록유지요건 위반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필요시 금융원 검사도 실시한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약가정책 변화 맞춰 설비 선진화·역량 강화

### IPO 간담회

#### 위더스제약

고부가 가치 제품군 기술확보로 성장  
병원 등과 직접 유통할 채널 확보할 것  
개량신약 R&D에 선제적으로 투자



성대영 위더스제약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차등 보상 약가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위더스제약이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위더스제약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상장 일정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대영 대표이사는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회사 설비 투자와 개량신약 연구·개발(R&D)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상장을 계기로 설비 선진화와 기술 역량 강화를 이루고 전문의약품 대표기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더스제약은 지난 2004년 설립된 의약품 제조 회사다. 노인성 질환에 특화

된 제제 기술로 수익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사 측은 "퍼스트제네릭과 세팔로스포린계 등 항생제 전용시설 등 고부가 가치 제품군 기술을 확보해 꾸준히 성장해 왔다"며 "도매뿐 아니라 병원, 약국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확보해 이익률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목표는 이중정 기반의 개량 신약 개발이다. 노인성 질환 품목군을 강화하고 탈모치료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성 대표는 "적극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 시험 투자를 해 품목을 확대하고 정부 약가 정책 변화에 맞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했다.

개량신약 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왔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꼽힌다. 덕분에 이미 생동 완 의약품들 다수 확보한 데다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용 시설을 보유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다음 달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제도가 개편된다. 이에 따라 생동 시험을 시행해 효능을 입증하고, 등록된 원료 의약품에 사용해 원료 입증은 마친 제품만이 상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약가가 내려간다. 해당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신제품 전체에 적용된다.

위더스제약은 회사 매출액 중 생동 제품 비중이 73%를 차지한다. 성 대표는 "정책에 발맞춰 2023년 7월까지 생동 제품의 매출 비중을 90%까지 확대해 시장 점유율을 더욱 늘리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tvin@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인베스트서울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최동욱 부행장(오른쪽)과 (재)서울산업진흥원 인베스트서울센터 정재욱 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 신한銀 인베스트서울과 外人 투자유치 '한뜻'

종합 행정·금융서비스 제공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인베스트서울센터에서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베스트서울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서울시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양사는 ▲외국인 투자자 발굴 및 유치를 위한 국내외 IR 개최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세미나 및 네트워킹 공동개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금융 관련 컨설팅 등을 통해 서울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신한은행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추천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및 등록, 투자자금 환전·송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달러 확보 나선 기업들... 외화예금 증가세

5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달러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809억2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27억4000만 달러가 늘었다. 지난 3월

이후 증가세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주체별로는 5월 기업예금이 649억4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9억6000만 달러가 늘었다. 반면 개인예금은 159억8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억2000만 달러가 줄었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 699억2000

만 달러, 유로화 예금 41억4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각각 19억2000만 달러, 6억8000만 달러씩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는 일부 기업이 결제대금과 금전신탁 만기도래 자금 등을 예치하면서 늘었다"며 "유로화의 경우 증권사의 해외투자 관련 증거금 일부가 회수되고 기업의 수출대금에 치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 704억5000만 달러, 외은지점 104억7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각각 15억3000만 달러, 12억1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안상미 기자

## 우리은행, LCK 개막 기념 이벤트

우리은행이 '2020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개막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라이엇게임즈와 LCK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e스포츠를 활용해 유스(Youth)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LCK 서머는 오는 17일부터 약 3개월간 10개 프로팀 리그로 진행되며, 우승팀에게 상금 1억원이 수여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22일까지 우리은행 공식 SNS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인

스타그램)에 게재되는 "LCK-우리은행 특별영상"을 보고, 코로나 극복 응원 메시지 및 친구 공유 등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 중 50명을 추첨하여 리그오브레전드 피규어를 증정한다.

또한 우리은행 지점이나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LCK 우리체크카드를 발급하고, 5000원 이상 사용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정복자 바루스" 등 인기 챔피언 스킨세트 4종 중 1종을 무작위로 증정한다.

/나누리 기자